



김훈기씨

‘게놈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과학저널리스트 김훈기씨

김훈기씨는 생명공학을 보는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스컴에서는 게놈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전달해서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게놈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조작식품 등을 통해 생명공학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의 인식 수준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과학전문 저널리스트 김훈기씨(35, 《과학동아》

기자)는 게놈 프로젝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단적인 예로 매스컴을 통해서 게놈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일방통행식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그는 게놈을 보는 시각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대 걸어

“생명공학에 대한 시민운동의 문제 제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시민운동이 왜 나서냐는 반응이 없지 않지만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언뜻 시민운동은 게놈 프로젝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내용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난 6월 26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자국을 주축으로 한 5개국 연구진이 인간 DNA 염기서열을 해독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언론은 클린턴의 선언이 ‘생명의 암호문’을 푼 것인 양 한바탕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1990년 시작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첫 결실에 불과하다.

“이번에 규명된 것은 초안 중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를 이루는 DNA 염기서열 30억쌍의 구조를 해명한 셈이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다. 30억개에 이르는 염기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숫자와 분포, 그리고 기능을 밝히는 일이 관건이다. 예컨대 사람의 유전자 숫자가 모두 몇 개인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생명공학의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특허권이 걸려 있는 데다 사용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훈기씨는 지난 5월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공리)를 펴냈다. 《과학동아》에 쓴 글을 책으로 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공학에 대해 무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몽적 차원에서 생명공학 관련용어의 구체적인 개념부터 게놈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흔히 모든 DNA가 유전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가 유전자입니다. 사람의 유전자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3만개에서 15만개까지 의견이 분분한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의 방책

김훈기씨는 복제양 ‘돌리’로 우리에게 친숙한 복제 문제는 크게 세 범주로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범주마다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복제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인간 배아복제와 인간복제, 그리고 동물복제로 나눠 살폈다. 특히, 인간 배아복제가 일으키는 최대 쟁점인 어느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인간복제는 불임부부의 숙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까닭에 선부른 가치판단은 곤란하지

요. 하지만 과학적 안정성과 복제인간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검토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이채로운 것은 복제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시험관 아기가 받았던 냉대에 비해 훨씬 덜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게놈 연구가 활발한 편에 속한다.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개발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덕분에 농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마냥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 생명공학 활황의 배경에는 다분히 부정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그는 이를 두가지로 요약한다.

“우선, 사회적 견제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시민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윤리위원회의 제제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제어장치로 기능하기보다는 막강한 지원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 연구비를 따낼 수 있기에 일부 학자는 언론 플레이에도 능합니다.”

김훈기씨는 현재로서는 게놈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견제세력으로는 시민사회를 꼽았다. 연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는 시민 개개인도 게놈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성일 기자